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57)

豈問有名

기 문 유 명

어찌 명분이 있는가를 묻습니까?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명분(名分)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이름에 따라서 그 물건의 쓰임새, 그 쓰임 료, 즉 분수(分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이름에 따라 그 물건의 쓰임새가 정해진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종과 지위에 따른 명칭이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이 명분이 잘 지켜져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칭과 그가 하는 일이 걸맞게 하고 그에 따라 자기가 가져갈 몫을 가져가게 되면 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 몫이 아닌 것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질서를 잡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 처벌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명분을 어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본에 넘치는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적절하게 처벌도 하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나마 사회는 안정될 수 있다.

이러한 명분의 질서는 국제 사회에도 있다. 각국이 서로 자기의 역할과 몫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 사회가 유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명분을 어기고 자기 분수(分數) 외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국제 사회에서는 침략이라고 한다. 가깝게는 북한의 남침이 그러한 것이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다. 이렇게 명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나라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제재를 가한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하여 유엔에서는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자로 규정하고 체포하라고 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러한 일은 역사에 많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송시절에 금(金)이 재차 송을 침공하려고 준비하던 시절이다. 남송은 금의 공격을 받아서 도읍 개봉(開封)을 금에 내주고 절강성 항주(杭州, 臨安)로 피난왔고, 여기서 금과 이미 우호 관계를 맺고 서로 잘 지내기로 맹약까지 맺은 사이였다. 그대가(代價)로 남송에서는 매년 금에 세폐(歲幣)를 꼬박꼬박 잘 보내고 있었다. 양국 간에는 사신도 끊임없이 왕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인데, 남송에는 금(金)이 다시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금에서 군사를 새로이 징집하고, 도로를 새로 닦고 군량미를 모은다는 소식이 바

로 금의 남침 징후로 해석하는 배경이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남송의 권예부시랑(權禮部侍郎)인 손도부(孫道夫)가 남송 황제인 고종에게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안팎에서 떠들썩하기로는 모두 금인(金人)들이 강(江)·회(淮)지역을 넘보려는 듯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을 들은 고종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짐이 그들을 대우한 것이 아주 넉넉하였는데 저들이 무슨 명목으로 기병(起兵)의 실마리를 잡겠는가?’ 고종은 금이 송을 남침할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 그러한 소문은 헛 문이라고 한 것이다.

사실 금(金)에서도 금의 황제가 남침하려 하자 아무런 명분이 없이 어떻게 남송을 치느냐는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금(金)의 대신인 적영고(積寧公)가 말하였다. ‘강남(江南)과 통호(通好)하여 매년 탕백(幣帛)이 빠지는 일이 없는데 갑자기 정벌전(征伐戰)을 일으킨다면 역시 출사(出師)하는데 명분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금(金)에서는 남송을 치기 위하여 꼬투리를 잡아서 명분을 만들면 된다고 하면서 명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당시 금의 황제 완안량(完顔亮)은 1149년에 당시 황제 희종(熙宗)의 목을 베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에 오른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 명분이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상황이니 명분으로 보아 금이 다시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송의 고종은 명분으로 보아 금이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손도부 입장에서는 답답하였다. 이에 손도부가 말하였다. ‘군사를 일으키는데 어찌 명분을 가졌다고 묻겠습니까!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일찍 이를 위하여 도모하십시오.’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에게는 명분이란 그냥 만들어서 우기면 될 일쯤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말이다.

명분이란 지켜지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일인데 상대가 지키지 않는다면 명분을 믿고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있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응하는 준비도 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손도부는 바로 고종에게 건의한다. ‘성도(成都)지역의 수신(帥臣)은 폐하께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의당 재주가 있어서 사천(四川)지역을 제치(制置, 處理)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을 구하여 항상 성인(聖人,

황제)의 의도에 맞도록 이들을 두십시오.’

금에서 남송을 공격한다면 여러 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지역인 사천지역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고종은 ‘마땅히 사람을 모아 두었다가 급할 때 쓰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요.’라고 대답하였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왕강중도 역시 말하였다. ‘적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도 다르다고 하면서 역사 속에서 그 예를 찾아서 설명하였다. ‘적(敵)을 방어하는데 오늘날 가장 먼저 해야 할 급한 것은 먼저 스스로 장수(將帥)를 선택하고, 사졸(士卒)들을 모아들이며, 군사 무기를 비축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몇 년을 덧붙여 주어져서 국세(國勢)가 부강(富強)해진다면 저들이 맹약하기를 요청한다면 한문제(漢文帝, 劉恆, 기원전202~기원전157)처럼 하고, 변경을 범접하게 되면 당태종(唐太宗, 李世民, 598-649)처럼 하십시오.’

상대가 명분을 지킬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면서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고종은 마침 서촉(西蜀)지역에 누구를 수신(帥臣) 임명할까 생각하다가 ‘문무(文武)에서 위엄있는 기풍을 가지고 대체(大體)를 아는 사람으로 왕강중을 남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여 그를 사천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 후에 금은 정말로 남송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였지만, 남송은 어느 정도 준비하여 둔 덕택에 큰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금이 더 큰 손해를 보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금에서는 황제에 완안량(完顔亮)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도강(渡江) 작전을 벌이려고 하는 가운데 병변(兵變)이 일어나서 실패되었다. 완안량 자신은 황제에 등극할 때도 명분 없이 행동하였으며 명분 없는 침략전을 벌이다가 최후를 마쳤다. 인과응보라 할까?

아직도 세상에는 실리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명분 없는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다. 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역시 명분 없는 실리는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하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의 미래는 불을 본 듯 뻔하다. 그뿐이겠는가? 국내에서도 너무 명분 없이 정쟁(政爭)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그 후과(後果)가 뻔하다. 이를 모르는 그들이 안스럽다.

부산장년회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부산장년회는 지난 4월 13일 저녁, 부산 연산동 보배밥상 음식점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겸한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이날 총회에는 부산총친회 송암(성용) 회장과 운산(중원)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원로 어르신과 각급 단체 회장, 총무 등의 내빈과 장년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민준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국민의례와 태사공 시조님에 대한 망배에 이어 내빈 소개와 신·구 회장 이·취임사 및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재문 회장은 이임사에서 코로나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어느새 4년이 흘렀다며 그 동안 잘 따라준 회원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총친회 원로 어르신과 각급 단체에 감사사를 표하고, 새 회장을 중심으로 장년회 발전에 더욱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영우 신임 회장은 전임 회장, 총무에 대한 기념품

(금배지) 전달로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한 뒤,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잘 수행할지 걱정스럽지만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원로 어르신과 회원들의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하였다.

또한 송암 총친회장과 운산 자문위원장 및 해광(정수), 송산(영현) 장년회 고문은 축사와 격려사에서 총친회의 중추이자 기둥인 장년회의 발전과 번성이 우리 총친회의 미래임을 강조하면서 재문 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영우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고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요지의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후 총회는 신임 임원진의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준비된 만찬을 나누며 모처럼 만난 족친끼리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이어졌으며, 송암 총친회장을 비롯한 세 번의 건배사에 호응하며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총친회 사무국장 권체영

권오신고문, 권명수부회장 100만원 장학금 기부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 안동권씨 전주, 완주 종친회 회의실에서 권이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운영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신 고문과 권명수 부회장의 2023년도 장학금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안동권씨 전주, 완주 종친회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도내 4년제 대학생을 매년 2명씩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권오신 고문과 권명수 부회장은 올해도 각각 100만원씩을 기부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동권씨 후손들에게 학비에 보탬이 되고 이를 계기로 면학의지 고취는 물론 희망을 주고자 매년 기부해 오고 있다. 권오신 고문은 앞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장학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이수 종친회 회장은 전주,완주 종친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소정액 장학금을 꾸준히 기부하고 계시는 권오신 고문과 권명수 부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상 장학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종친회 회원 여러분들도 스스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주,완주 종친회는 앞으로도 가정이 어려운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장학사업은 물론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권리와 복리 증진에도 더욱 더 노력 할 것이다.

권영춘 전주 완주종친회 총무이사

2023년도 부산종친회 정기총회 안내

안동권씨 부산종친회 제 47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족친끼리 손잡고 다함께 오셔서 한마당 잔치판을 열어 봅시다.

- ❖ 일 시 : 2023년 5월 20일(토요일) 오전 10시30분~
(10시부터 입장-식전 공연)
- ❖ 장 소 : 전포동 부산적십자회관 1층 대강당
(1호선 부전역 2번 출구→ 전방 60미터)
- ❖ 참고사항 : 안내문 봉투 지참, 기념품·간식 제공, 경품 추첨 등
- ❖ 안내전화 : 부산종친회관 (051)-804-8703, 010-3999-4728

2023. 5. 1.

안동권씨 부산종친회장 권 聖 容

다드림안경 다초점클리닉

(개업 5주년 명품 다초점 특별 행사)

대한민국 상위 1% 다초점 전문가로서 45년간 오직 안경만 연구했습니다.
족친님들께 40% 이상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다초점 안경 사용시 주의사항

1. 다초점 안경으로 운전할 때는 안경을 최대한 내려쓰십시오.
 2. 계단을 내려갈 때는 안경을 내려쓰고 고개를 숙여 안경 윗부분으로 계단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3. 휴대폰이나 서류를 볼 때는 최대한 올려 쓰고 턱을 살짝 들어서 봐야 더 잘 보입니다.
 4. 다초점 안경은 멀리 볼 때나 가까이 볼 때나 항상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 ※ 언제든지 방문하시어 안경테 피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11번길(의정부역 5분)
핸드폰 010-9618-9002 / 사무실 031-837-9002

대표/안경사 권영수(추밀공파 34世) 올림